

여수박람회장 활용 영호남이 뭉쳤다

전남·경남 인사 100여명 참여 추진위 설립
민간기업 참여 확대·사후 활용 정부에 제안

65만㎡에 이르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장의 향후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영·호남 주민들이 위원회를 구성했다.

정치권에서 여수박람회장을 세계적인 해양관광리조트로 조성해 남해안 해양관광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고, 지난달 24일에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 공식 출범한 바 있다. 그러나 박람회 기간이 끝나면 여수시가 지난해 부지와 영구시설에 대해 사후 활용 우선협상 대상자 제안을 공모했으나 겨우 1개 업체만 신청하는 등 민간업체의 참여가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여수시는 29일 “여수·순천·광양·고흥구례 등 전남 동부권, 진주·남해·하동·사천 등 경남 서부권 등 두 영호남 지역 인사 100여명이 여수시청 회의실에서 박람회장 사후활용추진위 설립을 위한 총회를 열고 창립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창립 선언문에서 “박람회 사후활용계획을 주제와 부합하고 세계와 약속한 방향대로 세우도록 정부와 협의하고 만들고자 시민들이 모였다”고 결성 배경을 설명했다.

공동위원장 15인(상임위원장 1인 포함), 집행위원 50인, 감사 2인, 고문 50인, 자문위원 10인 등으로 구성

된 추진위는 앞으로 ▲박람회 주제 실현 사업 및 사후활용 연계사업 유치 ▲글로벌 선진문화 시민의식 형성 및 성숙한 시민사회 구축 ▲사후활용 공공부문 시민참여를 위한 대정부 활동 등에 나서게 된다.

추진위 관계자는 “민간기업들의 참여를 늘리고 정부에 사후 활용에 대해 갖가지 방안을 제안해 박람회장이 하루 속히 재개발되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여수세계박람회재단 설립, 정부 지원위원회 존치 및 역할, 박람회 기념·개발사업, 해양박람회 특구 지정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설립된 2012 여수세계박람회재단은 정부 출연과 수익금, 기부금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



29일 오후 열린 2012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추진위원회 창립 총회에서 김홍석 여수시장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해 사후 활용 계획 수립, 박람회 기념사업, 시설·부지 운영 및 관리, 여수선언과 여수프로젝트 관련 사업, 남해안 해양관광 활성화 등의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모두 2조1000여원의 예산으로

조성된 2012여수세계박람회장은 정부가 4846억원을 2014년까지 조기완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이를 관리할 민간기업들의 참여가 지지부진하면서 재개발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섬진강 출렁다리, 곡성 랜드마크화

13억 들여 야간조명 등 설치

곡성군이 오곡면 송정리와 고달면 가정리를 연결하는 섬진강 출렁다리에 13억원을 투입, 곡성의 대표 경관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곡성군은 29일 “출렁다리 경관 조성사업에는 국비 4억원, 도비 4억원, 특별교부세 5억원 등을 들여 곡성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출렁다리에 야간 경관 조명

및 상징 조형물 설치, 교량 주변의 섬진강 생태탐방로 연결 산책로 조성 등이 주요 사업 내용이다.

또 휴게시설도 함께 갖추어 섬진강 출렁다리 주변을 곡성의 관광명소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곡성군은 지난 2010년 집중 호우 시 섬진강댐 방류로 유실된 기존 다리를 철거하고 46억원을 투자해 섬진강 출렁다리를 지난 2012년 초 완공한 바 있다.

/곡성=김계종기자 kjkim@

아시아수산화회 4월30일 여수서 열린다

44개국 1300여명 참석

전남도·시·학회 협약

오는 4월30일 여수에서 열리는 제10회 아시아수산화회에 아시아 44개국 수산 관련 연구자, 공무원 등 1300여 명이 참석한다.

29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남도청 도지사실에서 전라남도도와 여수시, 한국수산과학회가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박준영 도지사와 김충석 여수시장, 배승철 한국수산과학회 회장, 이정열 아시아수산화회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해 여수 아시아수산화회 성공개회를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아시아수산화회는 1984년 선진 수산 기술을 교환하고 바다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아시아 각 국의 수산관련 연구자와 종사자 등이 참여해 설립됐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학회는 3년마다 개최되며, 현재 아시아 52개국 3200여 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는 세계적인 수산과학 전문 학회다.

한국수산과학회 배승철 회장은 “훌륭한 수산자원을 보유한 전남의 수산자원관련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여수 아시아수산화회는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4일까지 5일간 여수 디오션리조트에서 개최된다.

/김창화기자 chkim@

강진 용혈암지 정밀 지표조사

郡, 이달말부터 한달간

강진군은 29일 “향토문화유산 제47호 용혈암지의 정밀지표조사와 시굴조사를 이달 말부터 2월 말까지 약 한 달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용혈암지는 강진군 도암면 석문리 덕룡산 동쪽 기슭에 있는 백련사의 산의 암자로, 백련사 제1대 원묘국사 요세의 법손이었던 진정국사 천책, 정명국사 천인, 무의국사 정오가 머물면서 고려 후기 종교민중운동인 백련결사를 주도했던 역사적인 중요 유적이다.

용혈암은 동문선, 만덕사지 등 관련 역사기록에 따르면 13세기까지는 운영됐으나 조선 전기에 폐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세기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강진으로 유배된 후 매년 용혈에 놀러갔다는 기록도 있어 폐사된 이후에도 일부 지식층들은 찾은 것으로 강진군은 추측하고 있다.

용혈암은 현재 터만 남아 있으며 높이 4~5m 되는 높은 축대에 동서 20m, 서북 17m의 약 100여 평에 달하는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건물터 뒤편으로 길이 15m, 높이 2~2.5m의 동굴, 일명 용혈이 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i@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보기 좋고 건강에 좋은 무지개 가래떡

29일 오전 함평군 함평읍의 한 방앗간을 찾은 주민들이 설을 앞두고 무지개 가래떡을 고르고 있다. 복분자, 백년초, 쑥, 흑미, 발효박, 자색고구마, 백미로 만든 무지개 가래떡은 보기에도 좋지만, 함유물질과 황산화 물질이 풍부해 건강에도 그만이다.

29일 오전 함평군 함평읍의 한 방앗간을 찾은 주민들이 설을 앞두고 무지개 가래떡을 고르고 있다. 복분자, 백년초, 쑥, 흑미, 발효박, 자색고구마, 백미로 만든 무지개 가래떡은 보기에도 좋지만, 함유물질과 황산화 물질이 풍부해 건강에도 그만이다.

/함평=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보성군장학재단 4년만에 기금 83억 넘어

보성군(군수 정중해)이 지역 인재 육성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난 2008년 발족시킨 보성군장학재단이 설립 4년여 만에 기금 총액이 83억여 원을 넘어섰다.

보성군은 29일 “지역 인재육성에 대한 열의를 담은 장학금이 각계각층으로부터 답지하면서 지난해까지 73억원을 넘어섰고 새해 군 출연금 10억원이 더해지면서 장학기금이 83억여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한해만 2억7000만원에 달하는 기부의 손길이 이어졌으며, 이대로라면 2014년까지 목표액 100억원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조성된 장학기금은 지난해 ▲명문고 육성 1억6000만원 ▲관내 학생 51명 장학금 5400만원 ▲보성영재 교육 활성화 1000만원 등에 쓰였다.

군은 올해 모두 45억여 원을 들여 나후년 보성공공도서관 이전신축하

기로 하고 보성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또 보성고에 이어 지난해 벌교제일고와 복내중학교가 전라남도교육청 거점고 및 기숙형중학교에 선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적금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로 인해 폐교되는 조성고와 보성정보통신고에도 기숙사비, 급식비, 통학비, 교재비 등 학생들의 학업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소외지역 어린이에 독서서비스

초등학교·아동센터 순회

광양시, 그림책버스 운영

광양시가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그림책버스’를 순회 운영하고 있다.

(사진) 그림책버스는 독서문화 프로그램과 함께 그림책을 공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오후로 나눠 읍·면지역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운영하는데 어린이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지도 아래 그림책 읽기, 독후활동, 멀티동화상영, 자유독서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소요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30분 정도로 기간 별 20권씩 도서대출도 가능하다.

또 8월 휴가철에는 백운산자연휴양림에서 ‘그림책버스 작은도서관’을 만날 수 있다. 휴양림 주 이용객인 가족이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도서와 간행물 2000여권을 비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도서관 관계자는 “그림책 버스 순회 운영을 통해 공공서비스 소외지역에 차등 없는 독서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들이 맑고 바른 심성으로 자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광양시립중앙도서관(061-797-3862)으로 하면 된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 보건복지부 위탁교육기관 ▶

★ 보육교사는 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며, 영유아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교사입니다.

2013년도 제2기

보육교사교육원 학생모집

교육안내

• 교육기간 : 2013년 2월 18일(월) ~ 12월 중순(약 10개월)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수업
• 교육시간 : 주간반 오전 9:30~11:10 / 야간반 오후 6:30~10:10

제출서류

1. 본 교육원 입소신청서(소정양식) 1부
2.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
4.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2매
※ 원서접수시 전형료 : 5,000원

전형방법

• 서류 및 면접전형 : 2013년 2월 7일(목) 오전 10시

원서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및 마감일 : 2013년 1월 14일(월) ~ 2월 6일(수)
※ 토요일, 공휴일은 휴무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2013년 2월 6일(수) 도착분에 한함)
• 원서접수처 : 본 대학교 교육원 교하처

문의할 곳

교하처 김승호 선생
• TEL 062)605-1112, 605-1023 FAX 062)572-0264
• E-mail : krimsen@hanmail.net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 소로 36 광신대학교 교하처

나도 이제 보육교사!

1년 과정 수료 후 어린이집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렴한 교육비(1년에 1,700,000원: 2011년 기준)와 훌륭한 교수진이 준비된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을 지금 도전하십시오.

★ 보육교사 자격 및 진로 ★

보건복지부에서 위탁 선정된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소정의 과정(보육교사양성교육과정 1년)을 수료하면 보육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등에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자나 이와 동등 이상학 학력 소지자로서 누구나 지원가능합니다.
(단, 4주간의 현장실습(10월경)이 가능한 분야여 함)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축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호

150여가지의 축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축석 프리미엄뷔페!!**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24시 유·스퀘어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인터넷 · 안마기 · 세션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

주류서비스

성인1인당, 평일방문 고객께-

맥주 or 소주 1병
와인 or 생맥주 1잔 **1박1**

가격안내

(미용시간: 11:30-22:00)

• 평 일
성인(중학이상)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이상) 29,000원